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9] 마을 교육공동체가 거버넌스 리빙랩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2] '에코 투어리즘'이다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5]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1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7] 지역 애착과 관계적 돌봄이 청년을

지역으로 부른다!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다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 리빙랩이다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마을은 생활정치의 실험실, 관계적 돌봄의 학습장

이번 호에서 사례로 소개하는 충남 홍성 장곡면, 강원 춘천 사북면, 일본 도쿠시마 가미야마, 와카야마 다나베 지역은 지도에서 보자면 도시와는 거리가 먼 농촌과 산골 마을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오늘날 세계시민 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있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단순히 아이들의 배움터를 넘어선다. 그것은 주민이 스스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생활 정치의 실험실이자 관계적 돌봄을 학습하는 리빙랩이다. 농촌 소멸과 도시집중,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AI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묻는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세계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는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마을에서 시작된 실험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에게는 희망이 되기에 충분하다.

왜 마을 교육공동체인가

마을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퍼즐은 복잡하다. 세 가지 퍼즐을 주목해 본다면, 첫째로 사회적 거버넌스 개념을 들 수 있다. 행정 중심의 효율적 거점 모델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수평적 참여 구조로서 지역구성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 가벼운 공동체 개념이 주목된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을 유지하며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은 이주민에게 텃새를 내세우지 않고, 이주민은 세련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원주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할 때 오고 가고 들고 나는 이동이 빈번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은 늘 열린 자세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과 창의 혁신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늘 배우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마음과 협동의 힘은 가벼운 공동체 실험이 지속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셋째로 풀뿌리 세계 시민 개념을 주목하자. 지역에 뿌리내리면서도 기후위기·AI·불평등 같은 전지구적 의제를 고민하고, 사유하는 시민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대안 교육의 이유는 공교육의 획일성과 대도시 집중의 압력 속에서 협동과 돌봄, 창의와 전통을 동시에 담아내는 교육은 어디서 가능한가를 찾아보려는데 있다. 이번 호에 필자들이 다루는 네 가지 사례—홍성 평민학교, 춘천 별빛산골학교, 가미야마 마루고토 대학, 우추호 아카데미—는 이 질문들에 답하려는 현장의 실험이다.

평민학교, ‘마을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홍성 장곡면의 마을 교육공동체 실험은 오랜 경험을 통해 분명한 관점과 긴 호흡으로 독심 있게 아이들과 주민들이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하여 ‘평민학교’. 정민철 선생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마을이 대

신해야 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줄 수 없어요.”

평민학교 실험의 특징은 우선 면 단위 실험이라는 데 있다. 행정은 늘 ‘거점 중심 모델’을 선호한다. 그러나 평민학교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단위에 뿌리내린 작은 교육공동체야말로 주민 참여와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홍성의 여러 면 단위 마을에서 소규모 교육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교실을 넘어 마을 일상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실험을 가능하게는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사회적경제 경험이다. 장곡마을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사이를 이해하고 두 전략을 균형 있게 결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영 방식이 독특한 것이다.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때로는 협동조합으로 때로는 주식회사로 특징을 적절히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운동성’과 주식회사의 ‘책임성’을 절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실험이다. 정민철 교문은 “돈을 낸 사람과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책임을 분리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둘째 장곡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된다. 삶으로서의 농업을 이해하고 땅과 더불어 산다는 진심을 갖고 농사일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최근에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로 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농민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장



충남 홍성 장곡마을 전경

곡마율은 체험이 아니라 생활세계로서의 농업을 지향하고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빈번한 방문과 접촉을 통해 농업을 배워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평민학교는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10명 이하 소규모 참여를 원칙으로 마을 일상에 학생과 방문자가 함께 들어가도록 한다. 김장, 풀매기, 잔치 참여 속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요컨대 장곡마을은 모든 사업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철학이 배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누구 하나가 홀로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정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는 정의’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다.

춘천 별빛 산골 유학, ‘아이와 마을이 서로 배우다’

춘천 사북면 산골 마을. 도시에서 온 초등학교생들이 사과 호미를 들고 밭일하고, 저녁이면 어르신과 함께 밥을 나눈다.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산골 유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다.

산골 유학을 온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놀랍다. “여기선 혼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고 해요.” 한 학생의 말은 산골 유학의 핵심을 드러낸다.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아이’로 자란다.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한 부모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함께 이주한 부모들도 삶의 리듬을 바꾼다. 한 어머니는 말했다. “도시에선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여기선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어요. 시간을 버는 기분이에요.” 산골 유학을 온 아이들은 어르신과 이웃 돌봄으로 시작해서 학생 간의 상호 돌봄 그리고 자기 돌봄으로 이어지는 돌봄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은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노인 돌봄 즉, 반찬 나눔, 도시락 배달을 목격하면서 마을 전체를 ‘돌봄의 플랫폼’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산 교육이 되고 풍성한 공동체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윤요왕 이사장은 “어릴 때부터 어른과 살아본 아이는, 어른이 되어 돌봄을 낫설어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요원하다. 왜냐하면 산골학교 실험이 아직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학 절차, 교통·의료 취약, 재정 불안정 등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결국 별빛은 “제도의 틈새에서 버티는 실험”으로 현재는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참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가미야마 마루고토 대학, ‘마을 전체가 캠퍼스다’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인구 5000명에 불과한 산골에



장곡마을학교 활동 모습



장곡초등학교와 마을학교의 콜라보 활동. 사진=정민철 제공

2021년 세워진 5년제 기숙학교 마루고토 대학(KMC). 기술·디자인·기업가정신을 결합한 교육을 표방하며 매주 기업가가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

이처럼 KMC는 기업과 지역의 협력으로 출발하였다. 11개 기업이 장학기금 10억 엔을 조성해 학생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지역 주민은 개교 전부터 끝없는 대화를 통해 학교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

또한 KMC는 세계와 지역을 잇는 교육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AI·IoT를 배우면서도 전통 염색 장인과 협업하고 재난 대응 앱을 개발해 마을주민에게 보급한다. 세계적 의제와 지역적 삶이 동시에 교육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KMC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사노 준야 교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인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마을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청년도 필요합니다. 그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KMC의 비전입니다.”

우추호 아카데미^{Utsuho Academy}, ‘작은 우주를 꾸리다’

와카야마현 다나베. 높은 산과 깊은 계곡 그리고 흐르는 물 사이에 자리한 작은 학교 ‘우추호 아카데미’는 현재 학생 16명으로 시작하고 있다. 60% 이상은 외부에서 이주한 아이들이다.

우추호의 철학과 운영 원칙은 ‘글로벌 교육, 탐구 기반 학습, 웰빙’을 내세우며 주민이 방과 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학부모가 운영을 돕는다. 아직 재정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주민 환대와 지역의 적극적 지원 덕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또한 우추호는 세계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우추호 아카데미는 ‘Design for Change’ 등 국제 프로젝트와 연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작은 시골 학교이지만 이곳이 길러내려는 것은 풀뿌리 세계시

민이다.

마을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들

지역 애착과 세계 시민성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일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지역 애착을 배우고, 동시에 기후위기·디지털혁명 같은 세계적 의제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항상 마을 구성원이 염두에 뒀야 한다.

우선 거버넌스 리빙랩이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주민·정부·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다. 실패조차 새로운 길을 찾는 실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된 실험과 도전이 이어져야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궁리하고 함께 참여하고 책임도 묻는 것이 반복되는 리빙랩이 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공동체는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는 느슨하지만 지속적이다. 워케이션^{workation}에서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처럼 관계인구에서 시작해서 마을과 지역을 사랑하기에 점차 그 만남과 참여가 빈번해지고 그러다가 이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을은 현대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잠시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을 교육공동체는 추상적 구호나 당위적 주장으로는 결코 구현될 수 없다. 다양한 실험 즉 리빙랩처럼 운영하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다시 수정·보완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접근의 정책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성화된 정부 정책 방향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점 중심 행정에서 생활권 단위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지금 부처별로 각개 전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사회서비스 정책을 교육·돌봄·

정주를 통합하는 농촌 이주 패키지로 만들어 긴 호흡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교육과 마을주민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실험(마을 캠퍼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 안 교실에서 지역의 특수하고 복잡한 일을 배운다는 것은 이론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협력의 실험이 늘어날 때 지역 주민 주도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I의 부상과 기후 재난과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을에서 새로운 교육 미래를 찾을 필요가 있다. 홍성 평민학교, 춘천 별빛산골학교, 가미야마 마루고토 대학, 우추호 아카데미, 이들의 실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학교는 교실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고, 교육은 곧 돌봄이자 민주주의이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시민성을 길러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 농촌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마을이라는 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아이,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만드는 관계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다.

마을 교육공동체의 실천 과제

마을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그동안 필자들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현장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구성원의 지역 애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은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관계성을 맺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 ◆ **지역 애착:** 억지로 성과를 내지 않고, 지역을 좋아하고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 ◆ **관계성:** 일상적 만남과 축제, 함께하는 노동과 교육 속에서 소통과 합의, 책임과 실천이 자라난다.
- ◆ **경청과 배려:** 누군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듣고 배려하며 젊은 세대에 권한을 나눈다.
- ◆ **공교육 연결:** 마을은 공교육의 바깥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며 학교와 교육을 확장한다.
- ◆ **가벼운 공동체:** 이주와 정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들고 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느슨한 관계라도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 ◆ **글로벌 연계:** 지역의 실험은 아시아·유럽·미국과의 자매결연, 커리큘럼 공유로 확장된다. 마을은 곧 세계로 향하는 창이다.
- ◆ **민주주의 학습장:** 작은 마을에서 관계 맺기, 합의하기, 책임지기 과정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훈련이다.

이와 같은 실천 과제를 견지하다 보면 마을 단위에서 새로운 지식, 연구 및 연구 결과, 삶의 방식, 그리고 전통으로 가꾸고 유지할 방안으로서 마을 교육공동체를 주목하게 된다. 인성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협동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는 마을 교육이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이뤄가



가미야마 마루고토 컬리지의 모습

는 관계성은 반사회적 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과는 분명 다르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고,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전혀 부담 없는 마을 학교 학생들, 홀로서기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외롭게 살지 않기도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이것을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삶의 복잡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지역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타자와 소통하기, 관계 맺기, 함께 공리하기, 합의하기, 실천하기, 책임지기 등의 과정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도정이고 맛보는 통로이다.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혹은 마을과 긴밀히 연결된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의 과제를 학습하고 그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머리로만 정답만을 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마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남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훈련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교육과 학습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관계적 돌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설 풀뿌리 세계시민, 우추호 아카데미 교코 센고쿠 이사장

세계 경제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우추호 아카데미 모습. 사진=교코 센고쿠 제공

요동치고 기후 재난과 생물종 위기 같은 환경의 불안은 농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동시에 지역 현장의 변화도 주민을 위협하고 있다. 초고령화로 노인 돌봄은 절박한 과제가 되었고 지방 소멸은 더이상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다. 마을 민주주의는 힘을 잃어가고, 이기적 개인주의가 관계망을 허물어 버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은 불확실성 시대의 대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역 혹은 마을의 미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실험에서 시작된다. 주민 주도 전략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마을’에 있다.” 마을 현장이 희망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붙들고 대안 교육을 실험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교코 센고쿠 우추호 아카데미 이사장이다.

교코 이사장은 와카야마 산골 마을에 우추호 아카데미라는 작은 우주를 세워 실험을 시작했다. “마을은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접촉 능력^{hapticality}을 길러주는 공간”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전통적 주민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주민과 새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공동체. 여기에서 비로소 ‘가벼운 공동체’ 전략이 실험된다.

마을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육 돌봄은 노인 돌봄, 더 나아가 지역 전체의 돌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주민 주도의 실험은 협동 속에서 또 다른 협동을 낳는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곧 세계시민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교코 센고쿠^{仙石 恭子} 이사장은 왜 우추호 아카데미를 설립하려고 했을까? 게이오 대학에서 환경정보를 전공한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와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20년 넘게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마을공동체와 협동의 삶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경험이 자기 고향인 와카

야마현에 돌아가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조금씩 꾸고 있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기에 아이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로서 그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5년 전에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우추호 아카데미가 있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천황이 교토에서 이곳까지 순례하는 역사적인 장소이기에 늘 외부인에게 환대하는 전통과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공감하고 11년 전 폐교한 건물을 새로운 학교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 지역 출신인 다나베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년간의 개축은 물론 학교 인가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교코 이사장을 비롯해 선생님들이 2024년 여름에 다나베로 이주하였다.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외곽 구마노 학원마을, 바다에서 산 쪽으로 깊숙이 20분을 운전해 들어가면 깊은 계곡 옆에 자리한 작은 학교 우추호 아카데미^{Utsuho Academy}가 있다. 8월 말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난 센고쿠 교코 교장

은 화면 너머로 담담히 학교의 현재를 들려주었다. 1년 전 현지 방문 이후 1년 만에 만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일단 2025년 4월 개교한 이후 학교 현황이 궁금했다. 아직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16명의 아이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배움터를 이루고 있다. 우추호 아카데미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작은 학교다. 현재 학생은 16명,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세 개 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코 교장은 “목표는 약 45명”이라며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눈에 띄는 점은 학생 구성이다. 60% 이상이 와카야마현 외부에서 이주해 온 아이들이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과감히 이사를 결심했다. 일부는 학교 근처로 이주했고, 또 다른 가족들은 다나베시 중심부에 정착해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우추호 아카데미 운영은 글로벌 연계를 지향한다

학교에는 전임 부교장을 비롯해 정규 교사와 파트타임



우추호 아카데미 모습과 마을 전경. 사진=교코 센고쿠 제공

교사들이 함께한다. 올해는 교사 근무 조건을 정비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 철학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글로벌 교육’, ‘탐구 기반 학습’, ‘웰빙’이다.

하지만 재정적 자립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개교 전에는 “새로운 학교”라는 비전만으로도 기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인 스토리와 설득력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 후원과 개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정적 기반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우추호 아카데미는 주거와 지역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우추호 아카데미의 성장은 단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와 환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일자리,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함께 마련돼야 하죠”라는 지적처럼 학교는 다나베시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주거 대책과 정주 조건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9월부터는 방과 후 시간에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재능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의 지혜를 전수하는 활동이다. 학부모들 역시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우추호 아카데미는 풀뿌리 지역에 있지만 글로벌 연계와 협력을 지향한다. 즉 글로벌 협력을 통해 풀뿌리에서 교육받는 어린 학생이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즉 방문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연대의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우추호 아카데미는 작은 시골학교이지만, 그 시선은 세계로 향한다. 올해 우추호 여름학교는 일본 학생들만 대상으로 열렸지만, 앞으로는 해외 학생까지 참여하는 국제 여름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Design for Change’라는 국제 교육 프로젝트와 협력하

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센고쿠 교코 교장은 말한다. “아직은 작은 학교지만, 저희 도전이 동아시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추호 아카데미는 마을과 세계를 잇는 실험임에 틀림없다. 필자들이 우추호 아카데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멋진 학교 이미지를 넘어 지역사회·부모·주민·국제 파트너십이 함께 얹혀 살아 있는 배움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출발했지만, 이곳에서 길러내려는 아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분명 성장할 것이다.

와카야마 다나베의 우추호 아카데미는 아직 작은 학교지만 마을 전체가 어른이 되는 학교이다. 이 작은 학교는 마을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며, 공동체와 교육을 엮어간다. 인근 다나베시의 제도적 지원, 지역 주민의 환대가 이주민 부모와 아이들을 품고 있다. 마을주민 전체가 명예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

자연경관과 유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례코스 상에 있는 이 학교는 분명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중에 우연히 학교를 만나 학교 비전과 철학에 공감하고 그 내용을 전지구적으로 알리는 메신저가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글로벌 연계와 협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추호 아카데미는 이미 수년 전 시작한 실험적 모델로서 가미야마 마루고토 칼리지(이하 KMC)의 지역사회와 신뢰 쌓기 그리고 풀뿌리 세계시민을 향한 비전에서 배울 것이 적지 않다.

가미야마 지역에서 새로운 사립 전문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젊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편의시설도 없는 시골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다. KMC는 개교 전 일주일 동안 전교를 개방해 주민들을

초대했고 학생들은 매년 마을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협력해 재난 대응 앱을 개발하거나 전통 염색 장인과 협업해 업사이클 작품을 선보인다. 사노 교수는 “마을이 무너지면 학교도 존재할 수 없다”며 지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 비전을 준야 사노(佐野 淳也) 교수는 KMC가 추구해야 할 교육 비전이라고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기후 및 환경재난, 전쟁, AI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등의 전지구적 의제를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가 풀뿌리 지역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뿌리로부터 실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내는 아래로부터의 도전이라는 경험은 풀뿌리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결코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과 연대와 공존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풀뿌리 세계시민의 중요한 덕목이다. 사노 교수는 “우리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인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마을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청년도 필요합니다. 이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KMC의 비전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할 때 필자에게는 교코 이사장이 오버랩되었다.

현재 KMC에는 학년별 40여 명씩, 최대 220명의 학생이 생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여성 학생 비율도 절반에 이른다. 이는 일본의 공학 계열 학교에선 드문 모습이다. 훌륭한 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커리큘럼이 우수한 인재들이 KMC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최첨단 전문학교 같지만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거버넌스다. 주민 환대, 이주민과의 협력, 풀뿌리 세계시민의 참여가 학교의 특수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가볍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워케이션, 단기 체류에서 장기 정주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미야마를 주목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가미야마에서 일궈온 마을 교육공동체는 단순히 모방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 쌓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협력 문화가 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미야마에서 새롭게 추진한 KMC 학교 실험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재정적 지원을 기업에만 의존할 것인가? 풀뿌리 세계시민의 인재상을 제대로 구현할 것인가? 마을주민과의 결합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가미야마에 남거나 혹은 나중에 돌아와 KMC의 비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할까 등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실험인 것이다. 물론 우려보다 희망이 더 큰 이유는 KMC 스스로 비전과 장기발전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마다 교수·스태프 전원이 모여 2~3일간 합숙 워크숍을 열며 교육 비전을 다시 논의한다. “우리는 늘 ‘공사 중’입니다. 2029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이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조차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라는 말은 KMC가 가미야마 지역공동체에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우추호 아카데미라는 작은 학교와 KMC의 야심찬 실험



우추호 아카데미 교코 센고쿠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한 공석기 필자

은 지금 거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교육은 어떻게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가?’ ‘대안 교육 공동체 실험이 지역의 쇠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가?’ ‘풀뿌리 세계시민성’을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긴 호흡을 가지고 미완의 실험이지만 결코 소망을 놓치 않고 ‘마을과 세계를 동시에 잇는 새로운 시민성이 움트는 학교’를 가 계속해서 가꾸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터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

불확실성의 시대, 교육은 다시 묻는다. “어떻게 지역 애착을 길러낼 것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체득하게 할 것인가?” 마을 교육공동체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사업 성과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적 만남·관계적 돌봄·축제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주민과 아이가 함께 성장한다.

홍성 장곡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 중에 평민학교는 지역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평민학교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 외부 자원에 기대어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주민과 아이가 함께 살아가며 지역과 주민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고, 잔치에 참여하며 원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주민은 “구경꾼”이 아니라 기획·참여·평가에 이르는 교육의 전 과정에 함께한다. 경청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누구도 나서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젊은 세대에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은 지역 애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일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지역 애착을 배우고 동시에 기후위기·디지털혁명 같은 세계적 의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과 마을은 함께 걸어가야 한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주민·정부·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다.

실패조차 새로운 길을 찾는 실험으로 받아들인다. 관계는 가볍지만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는 느슨하지만 지속적이다.

워케이션에서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역은 세계와 연결될 때 더 살아난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단순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삶과 돌봄, 민주주의와 세계 시민성을 실험하는 거버넌스 리빙랩이다.

거점 중심 행정에서 생활권 단위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돌봄·정주를 통합하는 지역 이주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 기반 교육을 제도권 보완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을이라는 생활 현장에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협업적 실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를 고집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 리빙랩이 바로 지역 회복의 지름길이다. 

사진=공석기 제공